

□ 9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

대교협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9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전국 160개 대학총장들이 참석할 세미나의 주제는 "대학교육의 세계화·개방화를 위한 방향 모색"이며, 이 하계 세미나를 통하여 대학사회의 현안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더욱 합리적인 대학 운영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화와 대학교육(김진현 세계화추진위 위원장) △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 미래의 한국대학교 교육개혁(정범모 한림대 총장) △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다양화와 대학의 유형화(장명수 전북대 총장) △ 대학재정 지원의 형평성과 차등성(이면영 홍익대 총장) △ 대학교육의 질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제(김덕중 아주대 총장)

이밖에 교육부장관과의 대화, 대학 현안문제에 대한 자유토론, 국·사립대학별 당면과제 협의, 동반자 프로그램 등의 행사가 있으며 마지막 날에는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 경영·무역·회계 관련학과 평가위원 워크숍

대교협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올림픽아호텔에서 경영·무역·회계 관련학과의 평가

위원과 대교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학과평가를 위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 평가위원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에서는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평가의 세부절차와 유의사항, 평가항목별 평가척도의 확정, 대학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담당영역별 평가위원 분과회의와 현지방문팀별 회의도 병행하였다. 또한 "대학평가 인정제에 있어서 학과평가의 의의"(김덕중 아주대 총장), "학과평가를 위한 서면평가 및 현지방문 평가시의 유의사항"(최임순 연세대 명예교수)을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 연구보고서 발간

◎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실행 연구

(연구보고 94-93-498)

이 연구는 1994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되는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의 제1주기 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인 1994년도에 평가대상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에 대한 평가수행 과정과 평가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안을 탐색해보고자,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연구내용은 먼저 대학 종합평가인정제의 개요(목적, 평가기준, 조직, 활용)를 요약·제시하고, 94년도 종합평가인정제의

추진과정을 살펴본 후, 7개 대학의 평가결과를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각 평가영역과 평가항목별로 분석·검토함으로써 이들 대학간 상호 비교는 물론, 개별 대학의 강·약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 이상주(울산대), 이현청, 강경석, 권기욱, 김병주, 최두현, 나민주(이상 대교협).

◎ 대학교수의 업적평가를 위한 제도개발 연구

(연구보고 94-5-136)

이 연구는 최근 대학사회에 초미의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학교수 업적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아울러 대학교수 업적평가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대학에게 참고가 되고 우리나라 대학 실정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는 교수 업적 평가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대학 행정상 교수 업적 평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까지 제시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교수 업적 평가의 제도적 기원과 필요성, 미국·캐나다의 교수평가제도 분석, 국내 대학들의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현황 분석, 활용가능한 교수 업적 평가 도구 개발, 대학교수 업적평가의 운영체제와 활용방안 제시 등이다.

연구자 : 이현청, 나민주(이상 대교협), 박진규(호서대), 정기수(한양대), 성열관(고려대).